

韓國의 “마을숲”의 概念과 現況

장 미아 (사단법인 생명의숲 전문위원)

1. 序論

본고에서는 천연기념물의 새로운 분야로 손꼽히는 마을숲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는 500개소에 이르는 마을숲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¹. 마을숲은 고기록에 林藪, 洞藪, 邑藪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지에서는 숲, 수구막이, 숲쟁이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마을숲이란 용어는 1990년대에 제안²된 용어로 다양한 명칭을 통괄하는 의미가 있다.

마을숲은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취락 근처에 형성되는 숲으로서 특별한 목적이나 용도에 의해 조성되거나 관리되어 온 숲이다. 마을숲은 마을주민에 의해 오랜 동안 보호되어온 특징이 있으며, 지금도 그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숲의 형성기원은 삼국시대까지 올라가지만 현존하는 마을숲은 오래된 것이 500년~600년의 역사를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1970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사업과 새마을사업에 의해 마을숲은 농경지나 도로 등으로 개간되었고, 많은 숲이 소실되었다. 또한 농촌의 인구감소, 노령화는 마을숲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숲이 천연림처럼 변하여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쇠퇴하게 되었다.

마을숲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1990년도부터 꺼꾸로 학술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오염 등이 심화되면서 도시녹지확충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전통적 녹지문화로서 마을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마을숲은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기능분야의 연구대상으로서도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민간단체에서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마을숲의 보전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문화재청에서는 마을숲의 문화재지정을 위한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를 시행하였고, 정책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는 2006년까지 4년간 계속되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해 마을숲의 현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 의해 밝혀진 마을숲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문화재 지정에는 이르지 못하

였는데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점점 사라지고 있는 마을숲은 토지전용에 의한 소실이 가장 많은데 현 단계에서는 문화재지정에 의한 보존이 마을숲 보호에 최우선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지정이 활발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2004년부터 『녹색기금』에 의한 마을숲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의 사업내용은 매우 실효적인 것으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복원대상인 마을숲을 선정하여 숲의 정비와 후계목을 심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마을숲의 概念과 類型

마을숲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 주변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형성된 숲이다. 마을숲의 형성은 마을주민이 방풍이나 홍수피해 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 또는 천연림을 농경지로 개척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정비하거나 부분적으로 나무를 심어 형성한 것 등이 있다. 마을숲은 마을이 형성될 당시에 조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을주민이 대대로 관리하여 온 경우가 많다.

2003년 문화재청이 발간한 보고서³에는 마을숲을 기능이나 용도에 의해 성황림, 호안림, 어부림, 방풍림, 보해림, 역사림 등 6개로 구분한 유형이 나온다. 성황림은 마을을 수호하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성황당 주변에 형성된 숲으로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은 경우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을 경역을 정하여 예부터 보호하여 온 경우가 있다. 호안림은 마을의 전방 또는 측방을 흐르는 하천의 양안에 제방을 만들고, 홍수가 날 때 제방의 흙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방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한 것이다. 방풍림은 겨울철의 북서풍이나, 여름철의 태풍 등 풍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조성한 숲이다. 보해림은 풍수지리설에 의한 것으로 지형적인 결함을 보충하려는 비보적인 숲, 또는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지형상의 특이점을 감추기 위한 숲 등을 말한다. 역사림은 마을에

전해내려 오는 전설 등과 관련된 숲으로 마을주민들이 대대로 보호해오는 숲을 말한다. 이 외에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보고서⁴에는 당산림, 학솔림, 경관림, 방풍림, 호안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마을숲은 위치하는 장소 즉 마을의 공간적 위치가 어

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마을의 입구인 동구, 마을 주변 동산이나 능선, 마을 전방을 흐르는 하천가 또는 해변가, 마을의 주도로선 상의 가로숲 등이 그것이다.



도면 1. 성항림의 예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숲)



도면 4. 방풍림의 예 (강원도 춘천시 신동동)



도면 2. 어부림의 예 (경상남도 해안군 삼동면 물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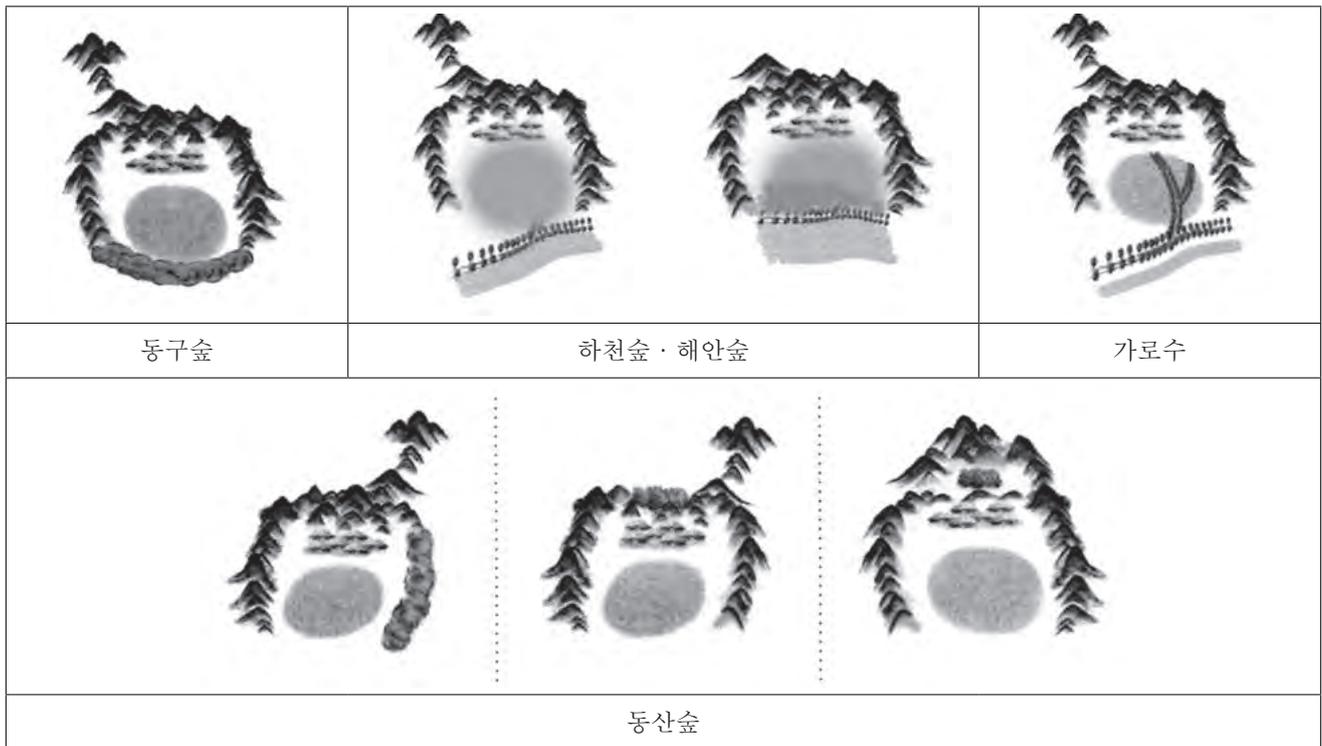
도면 5. 보해림의 예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도면 3. 호안림의 예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연둔리)



도면 6. 역사림의 예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도면 7. “마을숲”의 위치 [※도면인용 : (사)생명의숲 리플렛]

표 1.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2011년 8월 17일 현재)

식물					동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계	
259 (62%)					76 (18%)									73 (17%)				11 (3%)			419 (100%)	
노거수	수림지	희귀식물	자생지	분포한계지	서식지	도래지	번식지	조류	포유류	어류	곤충류	파충류	해양동물	사육동물	지형·지질	화석	천연동굴	암석	산악	해양		도서
168	46	19	13	13	9	6	14	26	7	4	3	1	2	4	30	20	18	5	4	2		5

표 2. 천연기념물 식물분야 지정현황 (2011년 8월 17일)

구분	지정건수	계
노거수	168 (65%)	259 (100%)
수림지	46 (18%)	
희귀식물	19 (7%)	
자생지	13 (5%)	
분포한계지	13 (5%)	

3. 마을숲의 文化財 指定 現況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숲의 대부분은 천연기념물/식물/수림지에 속해 있다. 천연기념물은 현재 총 419건이 지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식물은 62%인 259건이 지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식물은 5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노거수, 수림지, 희귀식물, 자생지,

분포한계지 등으로 그 중 수림지는 총 46건이 지정되어 있다. 수림지 중에서 마을숲은 총 20건이 지정되어 있다(표 1,2,3 참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숲은 현존하는 마을숲에 비해 매우 일부분만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표 3. 천연기념물 (수림지) 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숲 목록

번호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029	남해미조리상록수림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2.12.07
2	040	완도에송리상록수림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에송리	'62.12.07
3	082	무안청천리팽나무개서어나무숲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62.12.07
4	093	원성성남리성황림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62.12.07
5	108	함평향교리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62.12.07
6	150	남해물건리방조어부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12.07
7	241	남해녹우당비자나무숲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72.08.02
8	309	부산구포동당숲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82.11.09
9	339	완도미라리상록수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83.08.23
10	340	완도맹선리상록수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83.08.23
11	374	제주평대리비자나무숲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대평리	'93.08.19
12	375	제주남읍리난대림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93.08.19
13	403	성산경산리성막숲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99.04.06
14	404	영천자천리오리장숲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99.04.06
15	405	의성사촌리가로숲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99.04.06
16	469	예천금당실송림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06.03.28
17	473	안동하회마을만송정숲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06.11.27
18	476	영양주사골시무나무비슬나무숲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07.02.21
19	480	보성전일리팽나무숲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07.08.09
20	514	영덕도천리도림숲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09.12.30

4. 마을숲의 사례

본고에서 사례지로 꼽은 예천 금당실 송림은 2006년 3월 28일 천연기념물 제469호로 지정된 숲이다.

금당실 송림은 한국의 동남부 경상북도 예천군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양동마을과 가깝고,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으로 『경상북도 북부 유교권 사업』이 실행되어 마을 정비가 이루어져 전통적인 고택과 마을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금당실 송림이 자리한 마을의 지형을 보면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계곡에서 발원한 큰 하천을 중심으로 경북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큰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예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한 지역에 속한다.

금당실은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15세기 초에 감천 문씨인 문헌(文獻)이 정착하여 살면서 집성촌을 형성하였고, 그 뒤 입향조 문헌의 손자 문부경의 사위인 박종린과 변응녕이 금당실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문씨, 박씨, 변씨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큰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금당실은 조선 태조가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고자 전국의 좋은 땅을 살폈을 때 10승지 안에 손꼽혔던 곳이라고 전한다. 10승지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도 안심할 수



도면 8. 예천 금당실 송림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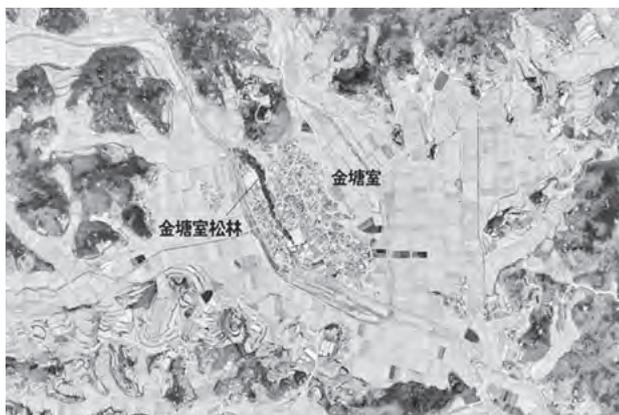
도면 10. 금당실 전경



도면 11. 금당실 송림 전경



도면 12. 금당실 송림의 1938년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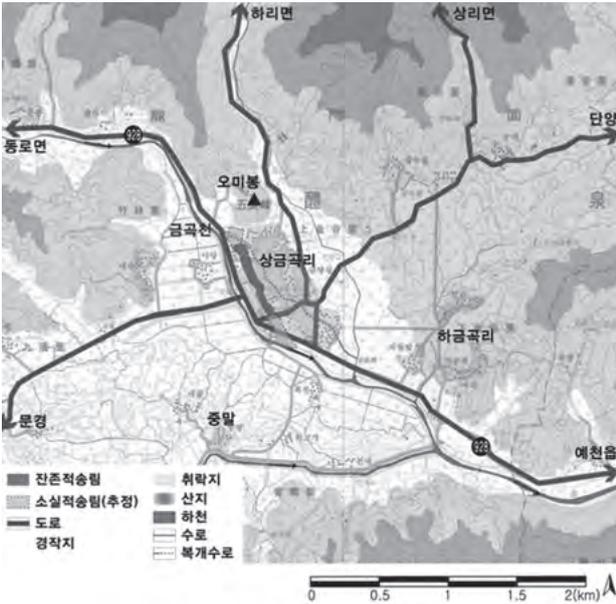
도면 9. 예천 금당실 송림의 위성사진



도면 13. 금당실 송림의 2005년도 전경



도면 14. 숲 내부의 소나무 전경



도면 15. 금당실 송림의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있는 땅으로 실제로 임진왜란 때에도 전화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풍수지리적 영향으로 한 때는 인구 1만 8천명의 큰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약 400가구 인구 500명 정도가 사는 마을로 거의 노령 인구가 살고 있다.

금당실이란 지명은 박종인과 변응영이 마을의 지형을 풍수지리론으로 풀이하여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에 해당하는 형국이므로 연못을 상징하는 당(塘)을 붙여 금당실이라 명명하였다고 전한다.

금당실마을은 조선시대 고가옥과 미로로 연결되어 있는 돌담길이 양반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전통마을로서 역사, 문화, 전통이 강한 곳이다.

함양 박씨 3인을 모신 금곡서원, 함양박씨 입향조 박종린을 숭모하여 재향 올리는 추원재, 원주 변씨 변응영을 기리는 사괴당 고택, 양주대감 이유인의 99칸 고택터, 조선 숙종 때 도승지 김빈을 추모하는 반송재 고택

등 이외에도 많은 고택들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고택들은 『경상북도 북부 유교권 사업』에 의해 정비되어 민박, 전통생활체험, 전통예절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고택이 후손 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관리상태가 매우 좋은 상황이다.

금당실 마을에서 남동쪽 1km 떨어진 곳에 병암정이 위치하는데 1898에 양주대감 이유인이 금당실마을에 99칸 집을 짓고 동시에 옥소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자를 지었다고 전한다. 금당실마을 서쪽 경계를 흐르는 금



도면 16. 금곡서원 전경



도면 17. 추원재 전경



도면 18. 사괴당 전경



도면 19. 양주대간 99 칸 고택터



도면 23. 청곡당 사랑채



도면 20. 반송재



도면 24. 병암정 전경



도면 21. 진사당 전경



도면 22. 진사당 안채

곡천이 정자가 위치한 절벽에서 소를 만들면서 흘러 자연스러운 연못이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주변이 논으로 변하면서 연당으로 조성하여 놓았다. 1920년 무렵 예천 권씨 문중에서 옥소정을 매입해 이름을 '병암정'으로 고쳐 오늘에 이른다.

금당실 송림은 마을의 서쪽을 흐르는 금곡천과 평행한 모양으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띠모양의 숲이다. 예천읍 용문면 상금곡리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 나무의 나이는 최고가 약 300년, 최저가 최근에 심은 나무로 약 30년 정도이다

이곳은 문화재 지정구역이 21,864㎡(6,625坪)이지만 실제 숲의 면적은 약 15,000㎡(4,545坪)이다. 금당실 송림은 현재의 규모는 연장길이 500m, 숲의 폭이 30~40m이지만 1938년도에는 연장길이는 800m, 숲의 폭이 30~50m에 이르렀다고 한다⁵. 현재의 숲은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을 구전에 의하면 금당실 송림은 겨울철 북서풍의 찬바람을 막는 방풍의 목적과 여름철 금곡천의 범람피해를 완화하여 마을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을이 형성될 당시 조성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마을 서쪽 경계를 흐르는 금곡천의 수구막이의 기능을 하었는데 수구막이란 마을의 좋은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뜻하

는데 마을 주변의 나무, 돌담 등을 이용하였다. 특히 마을 주변을 흐르는 하천의 하류 부분이 마을에서 직접 보이는 것을 금기시하였는데 이런 곳에 대규모의 숲을 조성한 곳이 많았다. 금당실 송림도 이런 수구막이의 기능을 한 것으로 전한다.

금당실 송림은 금곡천을 따라 금당실 마을의 북쪽 오미봉에서 남동쪽 병암정까지 약 2km에 걸쳐 금곡천을 따라 조성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도면 25. 금당실 송림의 현황

금당실 송림은 마을 형성 초기에 조성되어 400년 이상 이어져 내려 오다 1982년 역사적 사건에 의해 모두 별채되게 되었다. 마을에서 신성하게 보호하고 있는 주산인 오미봉에서 국가와 계약을 맺은 러시아광산회사 작업자가 금광을 채굴하려 산을 파헤치자 마을주민과 심하게 충돌하였다. 그 결과 광산종업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때 사망한 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마을에서 하기로 하고, 마을 공동소유의 송림의 아름다워 소나무를 별채하여 목재로 팔아 배상금을 충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송림이 그 모습을 잃게 되자, 마침 마을에 낙향해 있던 양주대감 이유인이 사산송계를 결성하여 송림을 복원할 것을 권유하고, 스스로 비용을 내고, 마을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숲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잔존하던 어린 소나무를 보호하고, 새로운 나무를 식목한 이래 120년 간 금당실

송림은 잘 보존되어 왔으며 마을주민들이 단오절의 그네뛰기, 추석절의 씨름, 등의 절기행사와, 일상생활 상의 휴식장소, 동창회 모임, 친목회 모임 등에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1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숲의 규모는 1/4 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나 2006년 문화재로 지정되어 예천군이 관리보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금당실 송림은 문화재 지정과 함께 수목병충해 관리 및 고사목 제거, 후계목 식목 등의 수목관리를 예천군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마을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에 의한 숲의 관리의식이 점점 희박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의 노령화에 의한 인구감소와 함께 새로운 귀농인구에 의해 마을구조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마을주민들의 역사와 문화에 오래 동안 녹아있는 마을숲에 대한 가치가 희미해지 있으며, 예천군의 형식적인 관리보호에 마을주민들을 배제시킴으로서 마을숲이 마을주민들의 삶과 유리된 채 박제화되어 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마을숲의 가치는 마을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꾸고 이용함으로써 본래의 가치가 계승되는 것으로 문화재 지정의 행정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및 문헌】

- 1) 이도원 외 3인 (2007): 『전통마을숲의 생태계서비스』, 서울대학출판부, p.p. 43-45.
마을숲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는 현재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 2) 마을숲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1994년도에 출간된 『마을숲 - 한국전통부락의 당숲과 수구막이』 (김학범·장동수 공저) 에서부터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논문 등에서도 간혹 「마을숲」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3) 문화재청 (2003):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p.p. 4-5.
- 4) 임업연구원 (1995): 『한국의 전통생활환경보전림』, 서울,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개칭되었다.
- 5) 조선총독부 (1938): 『조선의 임수』, 서울